

2023.2/4분기 미국 GDP 성장률(속보)은 2.4%를 기록

1. 2023.2/4분기 미국 GDP

- '23.2/4분기 GDP성장률(전기비 연율)은 소비가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민간투자까지 늘어나면서 전분기(2.0%) 보다 확대된 2.4%를 기록
 - 개인소비('23.1/4 4.2% → 2/4 1.6%)는 재화(6.0% → 0.7%)*와 서비스(3.2% → 2.1%)**의 증가세가 동반 둔화되면서 확대폭이 축소 <성장률 기여도: '23.1/4 2.79%p → 2/4 1.12%p>
 - * 자동차 및 부품(45.2% → -7.5%)이 큰 폭으로 감소 전환
 - ** 보건의료(10.0% → 2.8%), 여가서비스(6.1% → 1.8%) 등의 증가세가 축소되었으며 음식·숙박(4.5% → -2.9%) 등은 감소로 전환
 - 민간투자(-11.9% → 5.7%)는 주택(-4.0% → -4.2%)이 부진을 지속했으나 비주택 투자*(0.6% → 7.7%)가 확대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 전환 <성장률 기여도: '23.1/4 -2.22%p → 2/4 0.97%p>
 - * 특히 컴퓨터 및 관련 장비(-14.2% → 23.8%)와 운송장비(-24.1% → 55.8%)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
 - 순수출은 수출(7.8% → -10.8%)과 수입(2.0% → -7.8%)이 동반 축소 전환한 가운데 수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며 마이너스 성장기여도를 보임 <성장률 기여도: '23.1/4 0.58%p → 2/4 -0.12%p>
 - 정부지출(5.0% → 2.6%)은 연방정부의 비국방(11.3% → -3.9%) 부문 지출이 감소로 전환되고 주 및 지방 정부(4.4% → 3.6%)도 지출증가폭이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축소 <성장률 기여도: '23.1/4 0.85%p → 2/4 0.45%p>

(%, 전기비 연율)

	2020		2021		2022				2023	
	연중	연중	연중	연중	1/4	2/4	3/4	4/4	1/4	2/4
GDP	-2.8	5.9	2.1	-1.6	-0.6	3.2	2.6	2.0	2.4	
개인소비	-3.0	8.3	2.7	1.3	2.0	2.3	1.0	4.2	1.6	
민간투자	-5.3	9.0	4.0	5.4	-14.1	-9.6	4.5	-11.9	5.7	
비주택	-4.9	6.4	3.9	7.9	0.1	6.2	4.0	0.6	7.7	
(구조물)	-10.1	-6.4	-6.6	-4.3	-12.7	-3.6	15.8	15.8	9.7	
(설비)	-10.5	10.3	4.3	11.4	-2.0	10.6	-3.5	-8.9	10.8	
(지식재산생산물)	4.8	9.7	8.8	10.8	8.9	6.8	6.2	3.1	3.9	
주택	7.2	10.7	-10.6	-3.1	-17.8	-27.1	-25.1	-4.0	-4.2	
재고증감 ¹⁾	-0.55	0.24	0.74	0.15	-1.91	-1.19	1.47	-2.14	0.14	
순수출 ¹⁾	-0.26	-1.25	-0.40	-3.13	1.16	2.86	0.42	0.58	-0.12	
수출	-13.2	6.1	7.1	-4.6	13.8	14.6	-3.7	7.8	-10.8	
수입	-9.0	14.1	8.1	18.4	2.2	-7.3	-5.5	2.0	-7.8	
정부지출	2.6	0.6	-0.6	-2.3	-1.6	3.7	3.8	5.0	2.6	
GDP 디플레이터	1.3	4.5	7.0	8.4	9.1	4.4	3.9	4.1	2.2	
근원 PCE상승률	1.3	3.5	5.0	5.6	4.7	4.7	4.4	4.9	3.8	

주: 1)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(%p)

자료: BEA

작성자 : 노진영 차장

2. 시장참가자들의 평가

- 시장에서는 '23.2/4분기 GDP성장률이 컨센서스(1.8%)를 상당폭 상회한데는 소비와 민간투자 등 내수 성장*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, 통화긴축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**은 높아진 것으로 평가

* 국내최종(민간)판매증가율(%): '22.4/4 0.7(0.0) → '23.1/4 3.5(3.2) → 2/4 2.3(2.3)

** 금일 발표된 6월 내구재주문 증가(전월대비 +4.7%)과 실업수당건수 감소(-0.7만건) 등을 보면 향후 성장세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

- 한편 2/4분기 근원PCE 물가상승률(3.8%, 전기비 연율)이 시장 컨센서스(4.0%)를 하회했지만 일부에서는 견조한 성장세, 유가 상승 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

<주요 투자은행 등의 코멘트>

- **(JP Morgan)** 예상보다 높은 GDP성장률은 내용면에서도 긍정적이었음. 소비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예상보다 높았고 기업의 비주택 투자가 7.7%로 2022년 1분기 이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으며 핵심 척도인 민간의 국내최종 판매 증가율도 2.3%로 견조하였음. 더불어 근원 PCE가 3.8%로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한 점도 매우 긍정적임
- **(GS)** 예상을 상회하는 GDP 성장률과 금일 발표된 내구재 주문 증가, 실업수당 청구건수 감소는 강력한 미국성장세를 지지하고 있음.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근원 PCE 증가율이 하락하였다는 점은 가장 좋은 뉴스라고 판단됨
- **(DB)** 이번 GDP 데이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민간의 국내최종판매 증가율이 2분기 연속 상당폭 증가했다는 점이며 지난해 지속되었던 성장세 둔화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됨. 이러한 강력한 성장 데이터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
- **(CITI)** 2분기 GDP 성장세와 낮은 근원 PCE 인플레이션은 미국경제의 연착륙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당사는 이와 같은 성장세가 통화긴축의 영향 등으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견조한 성장세와 실업수당청구건수 감소 등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지속시킬 것으로 예상함
- **(Wells Fargo)** 금일 GDP 보고서는 미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높였으나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긴축정책을 장기간 지속시킬 수 있음. 최근 휘발유가격이 금년 최고치로 상승한 데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
- **(BOA)** 2분기 GDP 보고서는 미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기보다는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함. 현 상황은 연준이 앞으로도 더 높은 정책금리 정책에 편향될 것이라는 당사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추가 긴축 정책 없이는 인플레이션이 2%로 낮아지기 어려울 수 있음
- **(TD)**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GDP는 대부분 내수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음. 그러나 소비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민간의 국내최종판매 증가율도 지난분기보다 감소한 2.3%를 나타내었음. 당사는 통화긴축의 여건 등이 더욱 강화되면서 금년 하반기에는 소비와 기업활동 등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함